

북한 명산의 정치적 표상 재편과 금강산의 변화, 1945-1998

Reorganizat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f Prominent Mountains and
Its Influence on Mount Geumgang in North Korea, 1945-1998성 나 연* 전 봉 희**
Sung, Nayon Jeon, Bong-Hee

* 서울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박사수료, Ph.D. Candidate, Dep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 서울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Professor, Ph.D., Dep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Corresponding author : jeonpark@snu.ac.kr)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s in status, meaning, and role of Mt. Geumgang from 1945 to 1998 as it relates to Mt. Myohyang and Mt. Baekdu. After liberation, North Korea established a socialist state with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In 1967, when Kim Il-sung came into power, he purged his political rivals, who were supportive of establishing a socialist state, to politically transition into an autocracy. Originally, Mt. Geumgang was designated to display North Korean socialist ideas, however, its status and plan to use for propaganda purposes shifted to Mt. Myohyang and Mt. Baekdu; gradually it became marginalized as Kim's Juche ideology was emphasized. Mt. Geumgang instead converted into a space to recall memories of the Korean War, embody anti-American sentiment and to symbolize Kim Jeong-sook's loyalty to Kim Il-sung. Inevitably making Mt. Geumgang no longer a priority place to visit. In the process of being marginalized, Mt. Geumgang took center stage in attracting international tourists as North Korea grappled with overcoming economic difficulty in the 1980s. This process of shifting the focus and significance of Mt. Geumgang reflected North Korea's deviation from the shadow of the Soviet Union and restructuring the country based on its independent political ideology.

키워드 : 북한, 사회주의, 주체사상, 민족주의,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정치적 표상

Keywords : North Korea, Socialism, Juche Ideology, Nationalism, Mount Geumgang, Mount Myohyang, Mount Baekdu, Political Representatio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일제강점기 조선을 대표하는 명승으로서 풍경 감상 위주의 관광 개발이 활발했던 금강산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신체 보건과 위생에 대한 관심의 고조 속에서 ‘스포츠’라는 근대적 신체단련 행위를 위한 ‘산악, 대자연’이라는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후 국립공원 추진계획을 통해, 금강산은 유려한 산세와 사찰 건축물들로 구성된 전통적 경관과 미담의 웅대한 산악이 이루는 근대적 자연 경관으로 나뉘어 개발됨으로써, 풍부한 공간적 위상을 두루 지닌 경성의 주말 휴양지이자 국제 관광지로 역할 했다(Sung&Jeon, 2021). 이 연구는 그 이후의 시기에 주목하여, 해방과 분단 이래 북한에서의 금강산의 위상과 의미, 역할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공간의 활용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해방 이후의 금강산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대남 금강산 관광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거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로 국가 정책의 지원을 위해 수

행되었다¹⁾. 반면, 해방 이후 금강산의 실체를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연결하여 해석하고, 공간사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이와 관련해 금강산이 사회 속에서 장기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 프로젝트를 통해 갑자기 우리에게 실제로 등장했다는 Lee (2017)의 지적이 주목된다. 남북 간 협력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목적이 우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독창적 풍치의 명승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토대로 금강산을 이해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가 단절된 기간 동안 금강산은 북한 체제 내에서 어떠한 공간이었는지, 북한의 여러 명산 중 왜 금강산이 우리에게 개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고찰되지 못했다.

금강산과 달리 백두산과 묘향산은 해방 이후 북한 체제의 중심적인 장소로서 부각되어 왔다. Park (2011)은 북한에서 제작된 백두산 풍경화를 분석해, ‘조종의 산’에서 ‘혁명전통의 거점’, ‘통일의 상징’에 이르는 백두산의 위상 변화를 밝혔다. Moon (2021)은 이러한 위상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인 1950-60년대에 주목해, 김일성의 항일무장

이 연구는 2021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의 발표 내용을 심화 발전한 것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원과 건설환경연구소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 Shim (2001), Kim and Cho (2006) 등은 대남 금강산 관광사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했으며, Yoo (2019) 등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투쟁을 ‘혁명전통’으로 부각해 나가는 과정에서 백두산 일대에서 행해진 의례나 건축 사업 등을 조명했으며, 이에 앞서 Cho (2007)는 혁명전통을 지속하기 위한 의례인 ‘답사행군’의 형식적 진화와 이에 따른 백두산 일대의 공간적 변화를 살폈다. 한편, Kim (2018)은 묘향산에 주목했는데,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이나 한국전쟁 등 정치적 사건과 연고가 없는 경승지를 김일성 부자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조명하고, 묘향산이 ‘혁명전통’과 ‘민족전통’을 체득하는 공간이 되었음을 밝혔다. 이렇듯 두 산이 북한 체제 내에서 지니는 위상과 역할이 심도 있게 고찰된 것에 반해, 금강산은 북한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명산 중 하나였거나, 한국전쟁의 전적지였다는 등의 단편적인 언급에 그쳐왔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Shin (2021)의 연구는 해방 이후 북한 내 금강산의 표상을 본격적으로 탐구해 중요하다. 그는 북한에서 생산된 우표, 도서 내 삽화, 극장의 면막화 등 순수예술 외의 시각 매체와 일간지 기사 등에서의 금강산 재현을 분석해 금강산의 의미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는 도상(圖像)에서의 재현에 한정된 분석이기에, 금강산의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살피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간에 보다 집중하여, 해방 이후 북한에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금강산의 위상과 의미, 역할의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를 위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시작되는 1945년부터 대남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는 1998년까지 북한에서 생산된 텍스트와 이미지를 검토했다. 『김일성저작집』, 『김일성선집』 등 북한 내 주요 정책의 지표인 김일성의 교시를 기록한 저작, 『로동신문』, 『천리마』 등 정책 선전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기관지, 북한 내 건축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조선건축』 등 잡지와 명산 관광 홍보물, 문학 및 미술작품, 탈북자 인터뷰 등에서 금강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출해, 이를 시기별로 정리했다. 또한 이를 통해 확인된 북한 내 금강산의 변화가 지니는 특수성이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 백두산과 묘향산 관련 내용들도 함께 추출·정리해 시기별 변화의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북한 내 정치적 변화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전환하는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 내 주요 정치 이념이 전환되고 김일성 유일체제가 확립되는 1967년과 김일성 일가의 권력 세습이 공식화되어 김정일이 북한 최고의 실세가 되기 시작하는 1980년을 기준으로 정치적 시기를 구분하는데, 이 구분법을 수용해 이 연구는 1945-98년 사이의 시기를 크게 셋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금강산의 공간적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를 묘향산과 백두산의 변화와 비교했다. 우선, 해방 이후부터 1967년 사이,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한계 속에서 금강산이 지녔던 고유한 위상과 역할, 공간의 양상을 확인했다. 다음은 주체사상의 공식화 이후, 금강산이 점차 소외되어 가는 반면, 백두산과 묘향산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1967년 이후와 1980년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1967년 이후, 금강산에서 그 위상과 역할이 다시 새롭게 정의되고 개발되는 과정을 다루어, 금강산 대외 개방의 배경을 밝히고자 했다.

2. 제한된 ‘사회주의 인민의 락원’으로서 금강산

2.1 사회복지제도로써 여가와 휴식의 실현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한반도의 38선을 경계로 남북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해 남북이 분할되었다. 북한에서는 이듬해 2월, 소련의 지원 하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토지개혁과 전 산업과 철도의 국유화 등을 실시해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기 제정된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은 1년에 14일의 정기 휴가를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보장하며, 인민 누구나 정·휴양 제도를 이용할 권리를 명시했다²⁾. 정·휴양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의 휴가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여가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전환한 것이었다 (Choi, 2012). 이는 소련에서 여가를 ‘자연에서의 휴식을 통해 노동력을 회복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잠재력을 지닌 인간을 재생산해내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국가제도화한 것으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1947년에는 「정양·휴양사업조직에 관한 결정서」가 제출되고, 김일성은 외금강, 묘향산, 송도원, 주을온천 등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관광지에서의 정·휴양소 진흥을 교시했다³⁾. 정·휴양소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신체의 회복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주의 체제 고유의 여가시설인데, 1963년까지 북한에는 410개의 정·휴양소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된다 (North Korean Central Yearbook, 1964). 1947년 김일성은 금강산을 찾아 각종 정비방안을 제시하면서, 휴양소에서는 “체육문화오락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휴양생들이 유쾌하게 지내도록” 하고, “휴양생들의 건강에 깊은 주의를 돌려 원만한 수면환경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도록” 주문했다 (Kim, 1993). 1950년 『로동신문』에서는 외금강 휴양소 확장과 삼일포 탐승로 신설 등이 진행되고 있음이 소개되었는데, 신축되는 휴양소는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락부를 비롯하여 민주선전실, 독서실, 종합오락실, 기타 당구 탁구실, 휴게실, 담화실, 인민경제실, 무도실 등의 각종 문화시설이 완비된” 3층의 호화로운 현대식 시설인 문화관과 3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휴양관 및 대식당으로 구성된 “근대식 대문화시설”로서, “근로 인민의 락원”이 될 것임이 선전되었다 (Kim, 1950, March 28). 아울

2) 1922년 제정된 소비에트 노동법령에서는 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해 1년 14일간의 휴가를 갖도록 했는데, 이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3) 노동법을 비롯하여 정·휴양소, 관광충국 등 국가주도의 여가와 관련된 제도들은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것이다. 김일성은 휴양소를 별장 느낌이 나는 ‘-장’이 아닌 ‘-각’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는데, 소비에트 국가에서 인민의 정기휴양을 위해 제공하는 리조트를 뜻하는 러시아어 дом отдыха(Rest Home)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보인다 (Kim, 1993, p.33).

러 문화관 정면에 스탈린과 김일성의 동상이 함께 건립될 예정임을 전했는데, 이로부터 소련이 북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원조하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외금강 휴양소가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계획을 통해 조성된 건물 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금강산 홍보물 내 외금강 휴양소로 소개되고 있는 건물의 외양 역시 소련의 영향을 보여준다 (Figure 1). 이렇듯 국가가 제공하는 여가는 북한 체제 초기에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여가 기회의 고른 분배를 과시하여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우수함을 선전하고 체제 건설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1. The rest home in Outer Geumgang (*Geumgangsán*, 1981, p.16-17)



Figure 2. The Cheollima Tourism Group at Mt. Guemgang, edited by the author (*The Rodong Sinmun*, 1959, July 31)

특히 휴양소가 설치된 관광지 중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가장 먼저 본격적인 국립공원화가 추진될 만큼 독보적인 위상을 지녔던 금강산은 ‘사회주의 인민의 락원’으로 불리며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매력적인 보상으로 조명되었다. 금강산에는 가장 큰 규모의 휴양소가 조성되었다⁴⁾. 1957년부터는 급속한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을 위해

4) 1949년 『조선중앙년감』에 의하면, 1948년 당시 외금강휴양소의 침대수는 400개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전체 휴양소의 평균 수용능력인 침대수 162개를 압도하는 것이었다. 이는 정·휴양사업에서 금강산이 지니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Choi, 2012, p.25).

경쟁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천리마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 근로자들에게는 금강산 관광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1959년 『로동신문』은 천리마 운동의 포상으로서 운영된 직총 관광단의 금강산 참관을 다루고 있다 (Kim, 1959, July 31). 여기에서는 만물상 귀면암을 배경으로 금강산을 탐승 중인 여성 노동자들의 즐거운 모습이 그려졌는데, 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이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Figure 2).

2.2 사회주의 계급 전복의 신화의 체현

금강산은 사회주의 체제의 공평한 쾌락을 약속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계급 전복 신화가 체현된 공간으로도 선전되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동화와 소설, 가극 등으로 활발히 제작되며 금강산을 대표하는 문예작품으로 소개되었던 <금강산 팔선녀>는 금강산에서 가난한 나무꾼이 옥황상제의 딸인 선녀와 짝을 이룬다는 내용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를 각색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문화 통치의 수단으로서, 내선 민족동화를 위해 동원되었던 이 설화는, 북한의 사회주의를 은유하는 신화로 전환되었다⁵⁾. ‘나무꾼과 선녀’ 설화는 상이한 서사를 지닌 여러 이야기를 파생시켰는데, 월북 작가 한설야는 북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이 한창이던 1961년, 지상 낙원 건설을 위한 노동의 기쁨을 누리고자 천상의 선녀가 내려와 나무꾼과 함께 일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의 『금강선녀』를 창작하기도 했다 (Woo, 2014). 1950년대 중·후반에는 신속한 전제 복구를 위해 북한과 소련 및 여러 동유럽 국가가 연대하면서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금강산 팔선녀>가 소개되었으며⁶⁾, 1960년 평양대극장의 개관 시, 면막화(面幕畵)의 소재가 되기도 할 만큼 <금강산 팔선녀>는 북한 체제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Shin, 2021)(Figure 3).



Figure 3. The painting portraying the eight fairies of Mt. Guemgang (*Geumgangsán*, 1981, p.49)

5) 1926년 준공된 조선총독부 건물의 중앙홀에는 조선의 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나무꾼과 선녀’ 설화와 일본의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하고로모(羽衣)’ 설화가 마주보는 벽화의 형식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의 공통된 설화를 발굴해 보여줌으로써, 민족동화와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Jung, 2018). 이러한 역사를 지닌 소재를 체제의 신화로 기용한 것은, 북한 사회주의의 문화적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6) 1957년 『로동신문』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금강산 팔선녀>를 작품화한 소설이 출판되었음이 보도되었다. (The novel “The Eight Fairies of Mount Geumgang” was published in Czechoslovakia, 1957, December 3)

현실적으로는 북한 사회주의가 인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보상으로서, 관념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을 이상화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체현된 공간으로서, 체제의 확립을 위해 북한은 끊임없이 금강산을 소환했다. 북한은 인민 대중에게 정치적인 스펙터클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컬러 영화를 제작했는데, 1950년의 <1950년 5·1절>, 1955년의 <8·15 10주년>에 이은 북한의 세 번째 컬러 기록영화로서 1957년 <금강산>이 상영되었다는 사실은, 1950년대 북한에서 금강산이 지녔던 높은 위상을 드러낸다 (Lee & Han, 2018).

2.3 ‘제한된’ 사회주의 인민의 락원

한편, ‘누구나 금강산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사회주의 체제의 매력적인 제안에는 제약이 뒤따랐다.

첫 번째 제약은 교통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1946년에 철도를 국유화하면서, 경성을 중심으로 부설되어 있던 기존의 철도망을 평양을 중심으로 복구하고 개편했다. 평양과 동북 방향의 연결은 평양-고원 구간을 잇는 ‘평원선’을 통했는데, 평양에서 고원을 거쳐 함경선으로 갈아타 원산으로 이동한 다음, 동해북부선을 통해 외금강 온정리 부근에 닿는 것이 유일한 금강산 접근 경로가 되었다. 이는 간선인 경원선과 관광전용 철도인 금강산선을 이용해 경성에서 내금강에 닿던 일제강점기의 금강산 접근 경로보다 더 길었고, 여러 번 환승을 거쳐야 하므로 불편했다 (Figure 4). 또한 평양-금강산 간 왕복에만 최소 2일 이상이 소요되며, 이마저도 전력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계급 차이를 심화하는 대도시화를 경계하여, 도시간 인구 이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도시 조성원칙에 따라, 통제의 편리함이 있는 철도 이외의 교통로는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여 달리 대안이 없었다⁷⁾ (Kim, 1998). 이러한 제약은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고비용화하여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



Figure 4. The routes and distances between Mt. Geumgang and Seoul / Pyongyang

7) 북한 내 전체 교통량 중 철도는 1946년 기준 점유율 94.8%, 1994년 기준 점유율 86%를 차지했으며, 고속도로는 1946년 기준 점유율 4.9%, 1994년 기준 점유율 12%에 불과했다 (Lim, 1994).

두 번째 제약은 금강산이 휴전선 부근에 위치하여, 안보상의 위협으로 인해 그 일부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후반, 금강산 부근에서는 보다 유리하게 휴전선을 설정하기 위한 격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유점사·장안사·표훈사·신계사 등 금강산의 주요 사찰들이 피폭으로 소실되어, 금강산 경험의 중요한 요소였던 전통적 경관이 대부분 훼손되었다. 이후 금강산은 휴전선에 인접한 군사지역으로서 관리되어, 표훈사·정양사 등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는 건축 유산의 복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비무장지대에 속한 해금강 부근은 일반 진입이 통제되는 등 경험 가능한 영역도 매우 제한되었다 (Lee, 1998). 1930년대 금강산 국립공원 추진계획 이후, 금강산에는 내금강·외금강·신금강·해금강·신평리·선창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었고, 이는 오늘날 북한의 금강산 인식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 경험은 외금강 북부와 삼일포 위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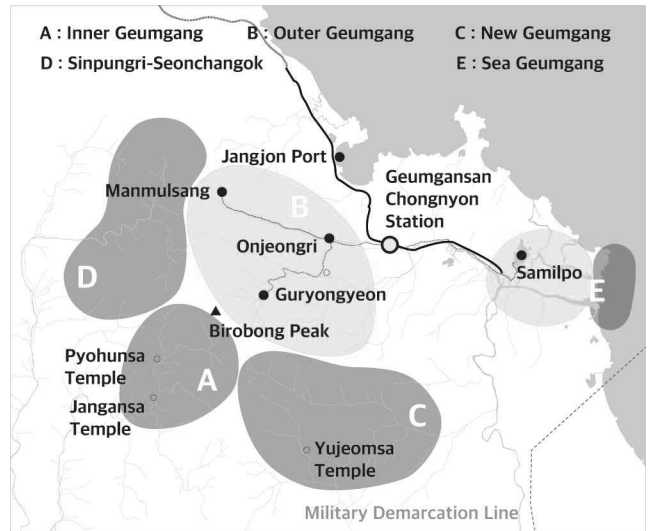


Figure 5. The open(Yellow-Colored) and closed(Gray-Colored) zones for recreation in Mt. Geumgang

세 번째 제약은 근로자의 휴가는 반드시 국가가 기획한 집단여행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인민의 의식주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철저한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개인의 자유를 통제했다. 1959년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생산의 효율을 높이면서 집단주의가 생활의 준칙이 되도록 했다. 여가는 개인 선택의 여지없이 집단적으로 배급받는 국가 복지서비스로 한정되었고, 자유의사에 따른 관광이라는 행위와 개념은 사회적으로 소멸되었다⁸⁾. 이에 따라 북한에서 금강산을 경험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8) Kim, Han and Lee (2006)는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관광이나 여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며, 북한에서 ‘답사’나 ‘견학’으로 불리우는 집단적인 이동 이외에 여행을 거의 하지 않음을 밝혔다. Ahn (2002)의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서도 북한의 휴일은 직종과 지역마다 구분해 정해져, 자유주의 사회의 ‘주말 여가’의 개념이 북한에서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 집단 여행에 적절하도록 2박 3일 간의 단기 코스로 규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로동신문』에 소개된 금강산 여정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사흘에 걸쳐 온정리와 수정봉 혹은 구룡연 일대, 만물상, 삼일포를 여행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1974년 김일성의 외금강 현지 지도 경로와도 일치한다⁹⁾ (Figure 5). 이 코스는 이후로도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남 금강산 관광 코스의 기초가 되었다¹⁰⁾.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비롯된 금강산 경험의 현실적인 제약들은 이후 북한 내 정치 권력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체제의 안정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금강산의 위상과 역할에 변동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다.

3. 주체사상의 전면화에 따른 묘향산과 백두산의 부상

3.1 주체사상의 등장과 역사유산의 적극적인 복원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을 치른 뒤, 새로운 기류가 등장했다. 1953년 이후 김일성은 전쟁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박헌영을 비롯한 남조선로동당파와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 등 북조선로동당을 구성하고 있던 다양한 정적들을 차례로 숙청하였으며, 자신의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발굴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흐루시초프 체제의 소련이 스탈린 숭배 역사를 비판하고, 김일성 숭배 경향을 강화시켜 나가는 북한 체제에도 간섭하려 하자, 김일성은 소련을 배제하고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이로부터 ‘주체사상’이 등장했다. 1955년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주체’의 문제가 제기된 이래, 1962년 12월 19일 『로동신문』의 「1952년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 회의의 역사적 의의」라는 논설에서 ‘주체사상’의 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그 개념이 정의되었으며, 1967년에는 주체사상이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공식화되었다 (Ahn, 2016). 초기의 주체사상은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북한 고유의 체제를 만들어나가는 주장으로서, 반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 이후에 주체사상은 김일성 유일체제의 이론적 기반이 되면서, 전 인민에게 항일유격대 정신을 모범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서의 민족주의는 ‘고구려-고려-북한’으로 이어지

는 북방정권의 정통성을 주창하고, 안정적인 국가 수립을 도모하기 위한 논리로서 체제 초기부터 강조된 것이었다. 1943년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를 통해 조선의 역사와 지리의 이해를 강조한 김일성은 1946년에는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제정했으며, 1949년 묘향산 방문에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와 같은 교시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1950년대 중·후반에는 평양의 대동문과 보통문을 복원하고, 대성산성과 안학궁터 등 고구려의 역사유산을 발굴하여, 평양을 수도로 하는 고대 정권의 계승자임을 과시했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 이념에 의하여 인민을 착취하는 봉건지배 계급의 건축물로 평가된 사찰, 서원 등은 제외한 선택적인 유산 복원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주체사상이 전면화됨에 따라, 보존·복원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건축물들도 ‘근로하는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 뛰어나고 독특한 예술적 재능이 깃든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서 재해석되어, 보다 폭넓은 역사유산의 복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3.2 ‘민족의 명승’으로서 묘향산의 부상

주체사상의 전면화와 함께 묘향산은 보다 부상하기 시작한다. 묘향산은 줄곧 금강산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풍치를 지닌 산으로서, 일제강점기에는 평양, ‘지하 금강’으로 불리던 동룡굴과 함께 서북 조선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였다. 따라서 북한 체제 초기부터 묘향산은 금강산 등과 함께 정·휴양지로 꾸준히 정비되어 왔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각종 역사유산 정비와 대형 국가시설의 조성 등 개발 양상에 있어서 금강산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Figure 6. The routes and distances between Pyongyang and Mt. Myohyang / Mt. Geumgang

이는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휴양지로서 금강산이 지녔던 약점을 묘향산에서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일제강점기 부설된 철도의 구조로 인해, 경성 중심의 선상에 위치해 개발된 금강산에 비해, 평양 중심의 선상에 위치한 묘향산은 경로나 거리 면에서 평양과 왕래하기에 더 유리했다¹¹⁾. 평양과 묘향산 사이의 거리는

11) 1930년대 만포선(滿浦線)이 부설되면서 평양과 묘향산을 잇는 서북 조선의 관광권이 형성되었다. 만포선은 동룡굴로 향하는 용등선(龍登線)과 구장(球場)에서 접속한다.

9) 다만, 한국전쟁 이전에는 내금강 휴양소가 운영되는 등 내금강 구역도 경험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Choi, 2012).

10) 1998년 10월호 『통일한국』에 실린 이무철의 탈북인사대담에서 탈북민 강호삼은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2박 3일간 삼일포, 구룡연, 만물상의 세 코스를 답사한다고 증언했다. 1998년 대남 금강산 관광 초기 제시된 코스는 여기에 수정봉과 해금강을 더한 것이다. 이후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2007년에 장안사에서 출발해 표훈사와 보덕암, 묘길상을 둘러보는 내금강 코스가 추가되었다. 2019년 2월 방영된 JTBC 다큐멘터리 <두 도시 이야기-속초, 원산>에서는 금강산 관광 초기 코스를 따라 구룡연, 해금강, 만물상 일대를 중심으로 금강산을 소개하고 있다.

평양과 금강산 사이의 거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당일 왕래도 가능해 정·휴양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묘향산은 북부 내륙지역에 위치해, 휴전선 부근의 금강산보다 국가의 자원을 투입하기에도 보다 안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Figure 6). 이러한 조건 속에서 묘향산은 평양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개발되었는데, 1973년에 묘향산은 평양직할시의 중구역에 편입되었으며¹²⁾, 1995년에 평양-향산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

묘향산이 각광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체제의 정통성을 선전하고 주체사상을 드러내기 위해 더 풍부한 소재를 지닌 공간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묘향산은 고려시대 이후 단군 탄강지로 여겨져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최남선 등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민족의 기원으로서 부각된 바 있다¹³⁾. 또한 묘향산은 고려시대에 중창된 이래, 특별한 권위를 지닌 사찰이었던 보현사가 위치하여, 북방 정권의 정통성을 표현하기에도 적절했다.(Figure 7) 보현사는 조선 후기 임진왜란에서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가 머물렀던 공간이기도 했는데, 이 외에도 수층사, 금강암 등 묘향산에 위치한 서산대사 관련 건축물들은 외침에의 저항 정신을 상기시켜 주었다. 더불어 묘향산에는 팔만대장경과 조선왕조실록 등 민족의 정신성과 역사를 응축한 유물들이 보존되기도 했다. 묘향산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장소성은 북한 내 관련 서술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반면, 금강산에서도 일제강점기에 유점사를 중심으로 한 승려들의 항일운동의 역사가 전해지지만, 항일투쟁의 주체를 김일성으로 단일화하고자 하는 북한에서 이는 주목되지 않았다.



Figure 7. Daeungjeon Hall of Bohyunsa Temple restored in 1976 (Cultural Preservation Research Institute, 1983)

1969년 묘향산 휴양지 총 건설계획이 수립된 이후, 묘향산에서는 민족적 전통을 가시화할 수 있는 풍경 개발이 이루어졌다. 묘향산 개발은 일제강점기 개발되었던 상원동 구역, 만폭동 구역, 하비로(下毘盧) 구역의 세 개의 코스가 위치한 신향산 영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묘향산 초

12) 묘향산의 각종 시설을 평양에서 직접 운영하고, 현지 관계자들에게 평양과 동등한 배급을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3) 마니산, 구월산과 함께 단군의 3대 성지 중 하나인 묘향산은 1920년대 중반 이후, 최남선, 이은상, 현진건 등에 의해 백두산과 더불어 민족을 융화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파악되었다 (Woo, 2006). 묘향산에는 단군이 기거했다는 단군굴이 위치한다.

입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상원동 구역 일대에는 1970년대 정비와 개발이 집중되었다 (Figure 8). 이 구역은 보현사를 비롯하여 상원암, 인호대, 불영대 등 전통 건축물들이 풍부하게 위치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민족성을 드러내는 풍경을 형성하도록 사업이 진행되었다. 우선, 한국전쟁 중 파괴되었던 보현사의 복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1976년에 보현사 대웅전, 1979년에 만세루가 복원되었다. 이 부근에 새로운 대형 국가시설들도 조성되었는데, 1978년에 보현사의 남쪽 계곡에 조성된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해, 묘향산 려관 등은 철근 콘크리트조의 대형 몸체부에 다수의 팔각지붕을 겹쳐 얹은 현대 조선식 건축 양식으로 조성되어 묘향산의 대표적인 풍경을 완성했다 (Figure 9). 아울러 1970-80년대, 묘향산역 부근에는 묘향산 휴양의 지원을 위한 소도시인 향산읍이 조성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현대성과 민족적 특성을 옹기 보여주도록’ 대부분의 건물들이 2-3층의 몸체부에 팔각지붕을 얹어, ‘고려풍’, ‘조선식’의 풍경을 형성했다¹⁴⁾ (Figur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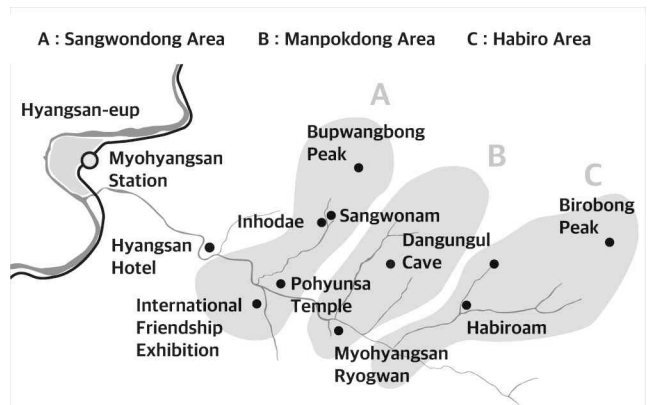


Figure 8. The tourist attractions in Mt. Myoh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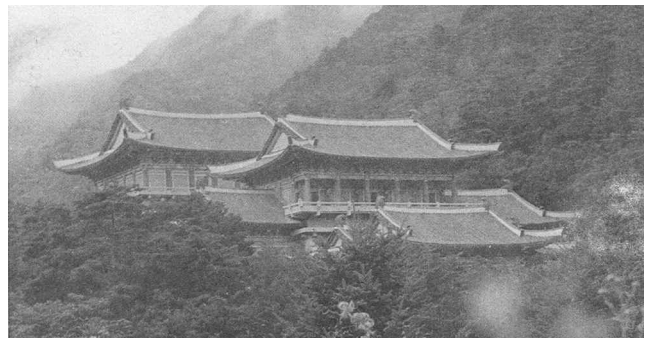


Figure 9. The International Friendship Exhibition inaugurated in 1978 (Hwang & Kang, 1990)

묘향산의 개발은 김정일의 권력계승이 공식화된 1980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김일성의 업적이 집중된 상원동 구역과 달리 만폭동 구역과 하비로 구역에서는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의한 정비나 명소 발굴 등의 업적이 강조되었다.

14) 1973년 현지지도를 위해 향산읍을 방문한 김일성이 “향산에 들어서면 옛날 고려맛이 나게 잘 꾸려야 한다”고 교시하여, 읍내 모든 건축물들을 ‘합각지붕에 기와를 얹은 조선식건물’로 짓게 되었다고 한다 (Park, 1991, November 17).

또한 묘향산 초입의 미개발지에 Y자형 평면의 삼각탑형의 독특한 형태로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보여주는 향산호텔을 건립해, 선대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권력의 등장을 가시화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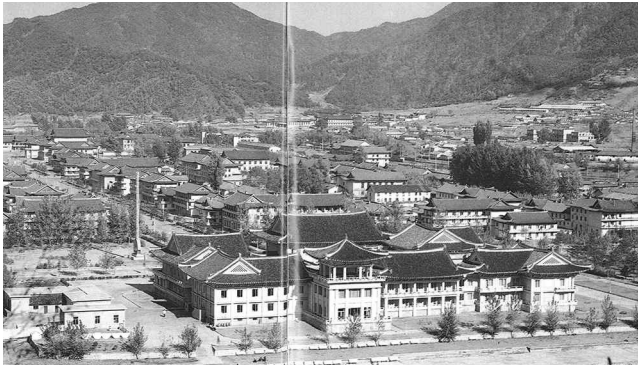


Figure 10. Hyangsan-eup, a tourism support town for Mt. Myohyang, constructed during the 1970-80s (*Great Garden of Architecture 1, 1990*)

이와 같이 묘향산에서 휴양지 개발이 집중됨에 따라, 금강산에서의 경험을 묘향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발견된다. 많은 문헌에서 묘향산을 금강산과 지리산을 합쳐놓은 듯한 풍경으로 묘사하여 유사성을 언급하며, 만폭동과 만물상 등 금강산의 유명 풍경을 묘향산에서도 향유하려는 시도가 발견된다. 1981년 하비로 구역에서는 ‘이선남(二仙男) 폭포’가 새로이 명명되었는데, 이는 <금강산 팔선녀> 설화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¹⁵⁾. 1984년에는 금강산 유점사의 종을 보현사로 이전하기도 했다. 여러 현실적 제약을 지닌 금강산의 대체재로서, 북한 인민의 락원은 ‘민족의 명승’인 묘향산으로 옮겨졌다.

3.3 ‘혁명의 성산’으로서 백두산의 등장

1967년 주체사상의 공식화는 김일성 유일 체제를 인정하여 김일성 숭배를 공고히 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로부터 ‘김일성의 무력투쟁에 의한 제국주의 지배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른바 ‘혁명전통’이 사회주의 이념에 앞서는 최우선의 정치적 가치가 되었으며, 북한 체제의 신화를 표상하는 공간은 금강산에서 백두산으로 이동하게 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백두산은 혁명전통의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으로서 적극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백두산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 반종파투쟁에서, 김일성의 혁명치적을 부각하기 위해 그의 항일투쟁 전적지를 조사·발굴하면서부터였다. 이 때 발굴된 전적지는 대다수가 간도지방에 위치하여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김일성을 각인시킨 ‘보천보전투’가 벌어졌던 백두산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북한 체제 초기, 국가 재건에 필요한 각종 자원의 공급을 위한 새 개척지로서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었던 백두산은 보천보와 량강

도 일대를 중심으로 혁명전적지 발굴이 집중되며 혁명전통의 진원지로 거듭났다. 1955년 보천읍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1963년 혁명박물관이 개관되는 등 보천보 일대가 혁명전적지로 정비된 것을 필두로 하여, 1960년대에는 혜산, 삼지연, 리명수(鯉明水), 후창 등 량강도 각지에서 혁명전적지 정비가 활발히 시행되었다 (Lee, 1989; *North Korean Central Yearbook, 1964*)(Figure 11). 이와 함께 북한 인민들의 휴양 행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보천보, 삼지연 등에서는 ‘혁명전적지 달리기’, ‘스키계주대회’ 등 학생들의 유희에 초점을 맞춘 지역 내 스포츠 이벤트로서 혁명지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는 1970년대 이후, 혁명사적지를 따라 평양과 백두산 부근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답사행군으로 체계화되었다. 1973년부터는 평양 만경대 고향집에서 량강도 포평까지 약 14일간 걸으며 김일성의 자취를 좇는 ‘배움의 천리길’ 행군이, 이듬해부터 역방향의 ‘광복의 천리길’ 행군이 시행되었다. 1982년부터는 혁명전적지 달리기를 변형한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



Figure 11. The Memorial Tower for Victory in Pochonbo battle, located in Hyesan (*The Tong-il News, 2015, June 4*)



Figure 12. The routes of expedition marches between Pyongyang and Mt. Baekdu / Ryanggangdo province

15) 묘향산 형제폭포는 1981년 김정일의 현지지도에서의 담화 이후,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금강산에는 금강산선녀가 내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묘향산선남입니다. 형제폭포는 이선남폭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Ryu, 1988)

이 정례화되었다 (Cho, 2007)(Figure 12). 답사행군은 김일성과 같이 백두산 일대의 광야에서 역경을 견디어 내며 신체와 정신을 담금질함으로써 혁명정신을 체화하는 교육 과정으로서, 차별 없는 즐거움의 향유를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설득하려 했던 사회주의 체제 초기의 휴양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북한 인민들은 이제 즐거움 대신 김일성의 고난을 나누어 가지며 체제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Figure 13. The hostel for youth expedition march in Samjiyon-eup (The rest homes in Samjiyeon, 1990,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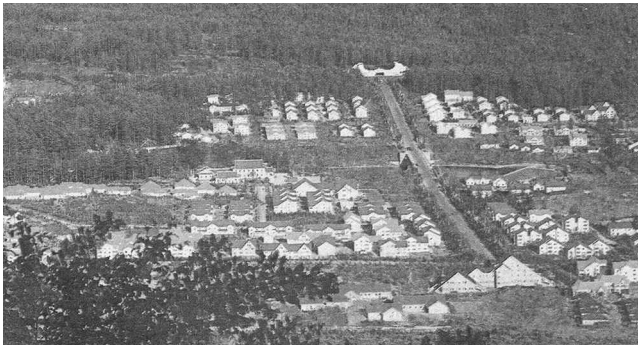


Figure 14. Samjiyon-eup, a tourism support town for Mt. Baekdu, constructed during the 1970s (Great Kim Il-sung is always with us, 2006, p.1)

답사행군이 국가행사로 정례화되면서 삼지연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도시가 조성되었는데, 혁명사적관을 비롯하여 근로자각, 대학생각, 소년단각 등 연령별 숙박 시설과 답사자회관 등이 건설되었다. 삼지연 일대의 건축은 금강산이나 묘향산 일대의 건축과는 달리, 경사가 급한 박공지붕을 주로 기용하여 서구의 산간마을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풍경을 구성했다 (Figure 13,14). 백두산 일대는 추위와 폭설 등 연중 혹독한 기후로 인해 전통시대 문명에 의해 개척되어 보지 못한 척박한 공간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는 동계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천연의 환경으로 재해석되어 스키장 등이 설치되고 국제공원화가 추진되기도 했다. 이 때, 삼방역 등 북부 산간지역의 철도역사는 박공지붕에 하프티뱌버구조를 갖는 북구식 건물의 형태를 갖는 등 서구 산간의 풍경을 재현하고자 했는데, 삼지연읍의 풍경 조성에는 이러한 근대기의 장소 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근대기는 곧 김일성의 혁명기에, 당시의 경관을 재현하려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백두산의 위상은 1980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의 우상화가 전개되면서 다소 변화한다. 『로동신문』은

1960-70년대 김정일의 치적을 선전하고, ‘영광스러운 당중앙’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82년에는 김정일의 첫 전기 『인민의 지도자』가 출간되면서 김정일의 출생과 성장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김정일은 백두산 밀영(密營)¹⁶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등장했다¹⁷. 이는 김정일과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 사이의 연고를 강조하여, 세습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백두산에서는 이를 증명하고 선전하기 위한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987년에는 항일유격대 대원들이 김정일의 출생을 축하하는 구호를 새겼다는 나무가 발굴되었고, 1988년에는 백두산 소백수 계곡에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하는 밀영이 설치되었다 (Figure 15). 그 배후의 산은 정일봉(正日峯)¹⁸으로 명명하고 바위에 이름을 새겨, 매년 백두산 답사행군대가 이곳을 찾도록 했다. 이에 더해,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을 항일투쟁을 이끈 여장군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키고,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과 삼촌인 김형권까지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들이었음을 밝혀, 혁명전통이 김일성 일가의 혈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김일성 일가와 연고를 지닌 지역에 그 행적을 기리는 기념동상과 혁명사적관을 조성하는 한편, 량강도 내 각 군과 읍의 명칭을 그들의 이름으로 바꾸어 백두산 일대가 김일성 일가를 상징하도록 했다¹⁹. 이로써



Figure 15. The Secret Barracks in Mt. Baekdu, known as the Kim Jong-il's birthplace, near the Jong-il-bong Peak (Jong, n.d., p.66)

16) 김일성, 김정숙이 백두산에서 항일유격대 활동을 하던 당시 머무르던 비밀 근거지이다.

17) ‘광명성’이 빛나는 밤에 백두산의 ‘소박한 귀틀집’의 밀영에서 태어난 김정일의 탄생 신화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의 탄생을 번안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아버지 김일성은 ‘하나님’, 어머니 김정숙은 ‘성모’로서의 상징도 갖게 되었다 (Jung, 2020).

18) 북한은 백두산 천지의 최고봉을 김일성을 상징하는 장군봉으로 일컫는다. 정일봉의 명명은 백두산에 김일성 부자를 나란히 병치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19) 1981년에 량강도 신파군을 김정순군으로, 1988년에 량강도 후창군을 김형직군으로, 1990년에 량강도 풍천군을 김형권군으로 개칭했다.

‘김일성 일가의 혁명전통의 기원’인 백두산은 금강산을 대신하여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4. 금강산의 소외와 그 대응

4.1 금강산과 반제 투쟁 표상의 결합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북한 체제가 재편되면서, 금강산이 지니고 있던 북한 인민의 락원, 휴양지의 역할은 ‘민족의 명승’인 묘향산으로, 체제의 신화를 현시하는 공간의 위상은 ‘혁명의 성산’인 백두산으로 이전되었다. 금강산에서도 표훈사의 사찰 건축물 일부가 복원되는 등 주체사상에 따른 정비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묘향산과 백두산에서와 같이 휴양·답사를 지원하기 위한 소도시를 조성하거나 주요 국가시설을 짓는 등의 대대적인 건축사업은 보이지 않는 등 1960년대 후반 이후 금강산은 국가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공간 사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양상을 보인다. 『로동신문』의 금강산 관련 기사 또한 현저히 단조로워지는데, 1960-70년대에는 외빈 및 재외 동포의 방문이나 관련 작품 관람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을 이루어, 이 시기 금강산은 대내적으로 가시화할 만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존의 위상과 역할을 상실한 금강산의 공백은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했다. 1966년 김의관이 제작한 조선화 <남강마을의 녀성들>은 지금까지 ‘선녀’가 노니는 신비로운 공간으로 묘사되던 금강산에 ‘장충을 들고 용감하게 싸우는 하층민 여성’을 등장시켰다 (Figure 16). 김일성이 매우 만족했다고 알려진 이 작품은 ‘미 제국으로부터의 조국 해방’을 명분으로 삼았던 한국전쟁의 기억을 소환하여 금강산을 반제 투쟁의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미 제국의 잔인함을 부각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전쟁에서 금강산이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은 체제 초기부터 있어왔지만,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인물상을 부각하는 것은 이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금강산에서는 1211고지, 351고지, 월비산고지, 영웅고개, 피바위 등 한국전쟁 전적지의 풍경을 바라보며 반제 의식을 상기하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Figure 17). 이와 함께 대외 교류 행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던 북한 사회주의의 상징, <금강산 팔선녀>는 금강산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1970년대에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등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시대를 다룬 ‘혁명가극’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이



Figure 16. *The Women of Namgang Town* by Kim, Ui-gwan (Park, 2019, p.79)

출현하는데, 그 중 하나로서 1973년 <금강산의 노래>가 초연되어 금강산을 대표하는 이야기로서 소비되기 시작한다. 이는 금강산을 배경으로 일제 통치하에서 고통 받던 주인공이 김일성에 의해 해방되어 행복을 되찾는다는 내용으로서, 역시 금강산에서 반제 투쟁을 조명한 것이었다. 1950년대 후반 금강산에서 휴식을 만끽하던 천리마 기수들의 즐거운 표정은, 1970년대에는 결의에 찬 식민지 신민의 표정으로 퇴행하며 인민의 락원을 무력 투쟁으로 잠식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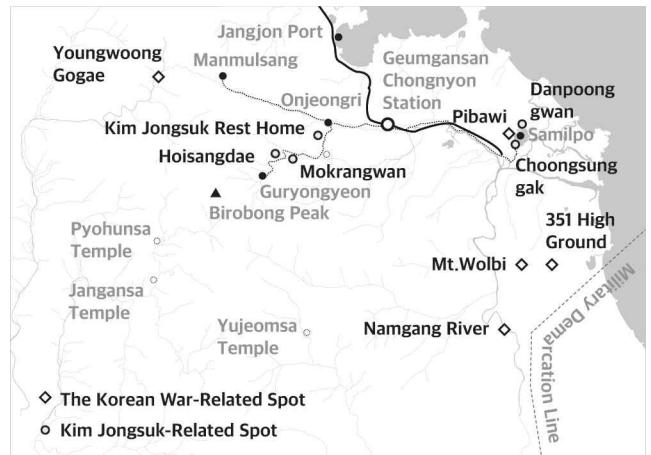


Figure 17. Newly developed attractions in Mt. Geumgang after Juche Ideology was authorized in 1967

4.2 김정숙을 기념하는 장소로의 전환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70년대 이후 묘향산, 백두산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병치되는 것과 달리 금강산에는 김정숙이 병치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백두산에서도 보았듯, 김정숙의 등장은 아들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관련이 있다. 1970년대 김정일의 후계를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김정숙은 금강산을 무대로 성인화되었다. 그녀는 1947년에 김일성과 함께 현지 지도를 위해 금강산을 한번 찾은 것이 전부인데, 그 때의 일화가 혁명사적화하여 반복적으로 회자되었다. 이는 당시 금강산을 오르던 김정숙이 풍경의 절정인 구룡연을 목전에 두고, 때에 맞추어 김일성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대단한 충심의 발현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녀는 1940년 연변의 안도현(安圖縣) 대사하(大沙河)에서 벌어진 일본군과의 국지전에서 몸을 바쳐 김일성을 보위해 저격을 면하게 했다는 일화로부터 줄곧 ‘충(忠)의 화신’으로서 그려져 왔기에, 이에 익숙한 북한에서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Park, 2019). 이는 수령의 보위에 힘쓰느라 금강산 풍경을 기꺼이 포기했던 김정숙의 충성스러움을 답자는 메시지로, 사회주의의 혜택을 당장 향유하려 하기보다, 김일성에 충성하여 국가가 부여한 책무를 우선시하자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이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북한 사회주의의 약속인 ‘전 인민의 금강산 휴양’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숙이 하산을 시작했다고 하는 지점에는 1973년에 ‘목란

관' 20)이라는 식당을 설치하여, 구룡연을 향하는 금강산 여행자들이 이곳을 반드시 거치면서 그녀의 충심을 상기 하도록 했다 (Figure 18). 1974년에는 삼일포에 '충성각' 이라는 현대식 누각이 건립되었는데, 역시 김정숙과 관련된 일화를 바탕으로 그녀의 충심과 남녘을 향한 투쟁심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건축물이다. 1947년 현지 지도 당시, 명사수이기도 했던 김정숙은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삼일포 위에 뜬 목표물을 총으로 쏘아 명중시켰다고 하는데, 이 일화 또한 혁명사적화되어 관동팔경의 하나였던 삼일포를 김정숙의 공간으로 만들었다.(Figure 19) 역시 삼일포 호수변에 조성된 식당인 '단풍관'은 김정숙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으로, 요절한 그녀의 생을 한철 불 같이 타오르다 저버리는 단풍과 같은 것으로 비유하여 기념한 것이다. 이 외에도 '희상대', '정성대', '금강산 혁명사적관', '김정숙 휴양소' 등 금강산 일대에 그녀를 기리는 명소들을 조성하면서, 김정숙은 금강산의 주인으로 자리하게 된다 (Figure 17).



Figure 18. Mokrangwan near the Guryongyeon Falls (Jong, n.d., p.161)



Figure 19. Choongsunggak at the Samilpo Lake (Geumgangsán, 1981, p.125)

4.3 '세계의 자랑' 으로서 금강산의 국제화와 인민의 소외 김정숙을 기념하여 금강산 일대에 조성된 건물들은 공통적으로 국제주의 양식으로 완성되었다. 이는 북한 체제 초기 사회주의 탁원을 지향했던 금강산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선 것을 이어받은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강산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북한의 현대적 발전상을 보여주어야 하는 공간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북한은 대

20) 목란은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이 직접 명명하며 등장한 꽃으로, 이후 무궁화를 대신해 북한의 국화가 되었다. 이 식당이 단순 휴양 지원시설을 넘어 국가의 표상 기획이 적용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내적으로는 금강산을 반제투쟁을 다짐하는 곳이자, 김정숙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환원하여 휴양지로서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해방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국제적 명승지' 라는 문화적 맥락을 계승하여 금강산을 국제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했다. 『로동신문』에 의하면 1960-70년대 금강산에는 북한을 찾은 외빈이나 재외동포들이 많이 방문했는데, 북한은 금강산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현대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어 그들에게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할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은 1970년대 '자력갱생' 을 기초로 하여, 자원·자본·기술·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의 동원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제활동을 국내에서 완결하고자 하는 주체 경제노선을 실험한 결과,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곤란을 타개하고자 북한은 대외경제협력을 중시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1984년, 북한은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낙후된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합영법」을 제정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Shin, 2010). 북한은 주로 인민의 사회 후생이나 체제 선전 차원의 관광 형태만을 인정하면서, 1960-70년대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정책을 제국의 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 추악한 행위로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은 생존을 위한 타협책으로서,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자본주의식 관광' 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강산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는 교두보였다.

북한 내 인민의 접근을 제약했던, 동해에 치우친 지리적 위치는 오히려 금강산을 국제관광지로서 개발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해외로부터의 접근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와 자본주의 문화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87년에는 금강산과 원산을 잇는 지역의 관광개발을 발표하고, 고속도로를 개통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희망대로 합자사업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주로 조총련계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Lee, 2015). 따라서 대외 개방 초기에는 제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관광이 주를 이루었으며, 금강산에는 북한 인민들이 이용하는 휴양소 등의 시설이나 경로와 구분된 구역에 국제주의 양식의 '금강산제일본조선인관광려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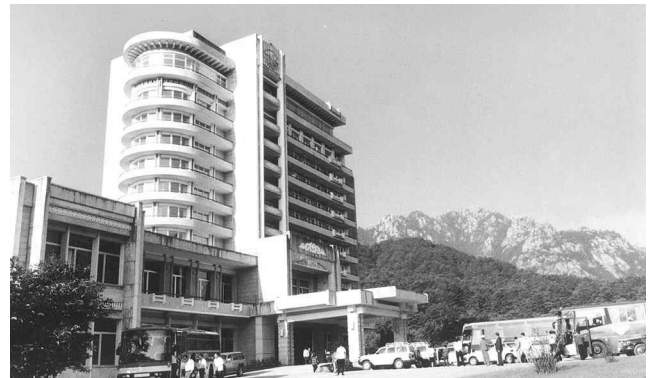


Figure 20. The Geumgangsán Hotel for Koreans in Japan, renovated into the hotel for South Korean tourists in 1998 (Jong, n.d., p.168)

Table 1. The changes in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the subjects between 1945 and 1998

Subjects	Period	1945-1967	1967-1980	1980-1998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state	Establishment of Kim Il-sung's dictatorship	Kim Jong-il's succession of power
Mount Myohyang		One of the paradises for the people, which North Korea's socialism provided	The representative paradise for the people, created by Kim Il-sung's revolution	The representative paradise for the people, followed by Kim Jong-il's revolution
Mount Geumgang		The representative paradise for the people, which North Korea's socialism provided	One of the paradises for the people, created by Kim Il-sung's revolution	A world famous scenic spot
		The symbol of North Korea with the socialist ideology	The battlefield of anti-American war	The place for commemorating Kim Jong-suk, a symbol of loyalty to Kim Il-sung.
Mount Baekdu		The new land reclaimed by the North Korea's socialism	The symbol of North Korea with the anti-imperial(Juche) spirit of Kim Il-sung	The symbol of North Korea with anti-imperial(Juche) spirit of Kim Il-sung's family

조성되었다 (Figure 20). 이후, 북한은 관광을 국가의 중요 사업으로 격상하고, 금강산 일대의 국제관광지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이와 함께 금강산의 대외적 효용은 대내적 효용을 점차 압도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1998년에는 남북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현대아산과 합자하여 대남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는데, 2000년대에는 금강산에 북한 내 일반인들의 출입이 아예 금지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Kwon, 2006). 이는 이미 북한을 추월하여 선진화한 남한 경제상(像)의 노출을 차단하여,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합자에 의한 개발을 내세웠지만, 금강산의 개발 방향이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경험의 형식 또한 북한 내에서 운영되었던 규격화된 코스를 집단적으로 관광하는 것으로 한정되었고 자유로운 경험은 허용되지 않았다²¹⁾. 이렇게 제한된 형태의 사회주의적 금강산 휴양은 북한을 찾은 국제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경험으로 회자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금강산은 북한에서 여전히 백두산 다음의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명산으로 선전되지만, 이를 국제관광객에게 양보한 북한 인민들에게는 점차 주변화하며 비현실적인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5. 결 론

이 연구는 해방과 분단 이후부터 대남 개방 이전까지 북한에서의 금강산의 위상과 의미, 역할의 변화를 묘향산과 백두산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공간의 활용 양상을 확인하였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성립에 기여한 정치 파벌들이 정리되고 김일성 유일체제가 성립되었으며 아들인 김정일에게 권력이 세습되면서 전제 군주제로의 복귀와 다름없는 정치적 전환이 일어났다.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의 이상을 전시하는 공간으로서 각광받았던 금강산은 현실적인 여러 제약과 새로이 등장한 주체사상으로 인해 묘향산과 백두산에 체제 선전 공간의 위상과 역할을 내어주고 점차 소외되었다. 대신 금강산은 한국전쟁의 기억을 호출하

고 반제 의식을 상기하는 공간이자, 김정숙을 본받아 수령에의 충성을 우선하여 당장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북한 내에서 주변화의 과정을 거친 금강산은, 1980년대 이후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북한의 제한적 개방과 국제 관광 개발의 무대가 되었다.

금강산의 표상과 공간의 재구성 과정은 북한이 소련의 문화적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구상에 의해 국토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은 각각 ‘혁명의 성산’, ‘민족의 명승’, ‘세계의 자랑’으로 위상과 역할이 재정의되고 그에 따른 경관을 조성하면서, 그들만의 폐쇄적인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국토 체계를 완성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해방 후 북한 내 금강산 경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밝혀, 현대 북한 금강산 개발의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금강산은 북한 인민의 삶에서 배제되며 비현실화의 과정을 거쳤기에, 국제적으로 개방되기 쉬웠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금강산 관광개발을 개방의 열쇠로 제시해왔으며,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세계유산 등재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 등을 통해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발맞추어 개방의 폭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체제의 제도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대가 될 금강산은 앞으로 또 다른 표상의 변화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Ahn, M. (2002). A study of the leisure life and sporting activities of the ordinary people in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1(2), 119-131.
- Ahn, M. (2016). *The Modern History of North Korea 3*, Inmulgwasasangsa.
- Cho, E. (2007). Making ritual of North Korea 'Revolutionary Tradition'.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10(2), 100-150.
- Choi, J. (2012). *A Historical Analysis of North Korean Group Tours: From 1949 to 1960*, Thesi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21) 2019년 10월 18일 현대아산의 대북관광 담당자인 강제석, 공명렬과 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금강산 개발영역과 관광코스는 북한 측이 제시한 것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Kang & Kong, 2019).

5. Cultural Preservation Research Institute. (1983). *Korean Historical Relics*. The Social Science Publisher.
6. *Geumgangsán*. (1981). Foreign Language Publishing.
7. *Great Garden of Architecture I*. (1990). Deungdaesa.
8. Great Kim Il-sung is always with us. (2006). *Korean Architecture*, 56, 1.
9. Hwang, H., & Kang, Y. (1990). *The Guide to Mount Myohyang*. The Encyclopedia Publisher.
10. Jong, S. (n.d.). *DPR Korea*. The Tourist Advertisement Agency.
11. Jung, B. (2020). *The Land of Hardship and Laughter: A Story about North Korea from a Cultural Anthropologist*. Changbi.
12. Jung, M. (2018). Production of fairy and a woodsman and feather robe and pursuit of uni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National Museum of Korea, *Mural Paintings on Public Building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13. Kang, J., & Kong, M., personal communication, October 18, 2019.
14. Kim, I. (1993). *About Reinforcing Nature Conservation Campaign*. Worker's Party of Korea Publishing.
15. Kim, J. (1959, July 31). Mount Geumgang, *The Rodong Sinmun*.
16. Kim, K. (1950, March 25). Grand expansion of Outer Geumgang rest home, *The Rodong Sinmun*.
17. Kim, N., & Cho, M. (2006). A study of the contribution of Mt. Gungang tourism development to Korean peninsula peac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0(3), 51-70.
18. Kim, S. (2018). *Political Transformation of Scenic Places, Focusing on Mt. Myohyang in North Kore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 Kim, S., Han, H., & Lee, H. (2006).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tourism realities through a surve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8(4), 381-397.
20. Kim, W. (1998). *Socialist City Planning*. Bosungkak.
21. Kwon, O. (2006, December). North Korean defector interview 110, Myong-Il Kang, the former worker at the Bureau of Cultural Preservation Guidance in the Ministry of Culture. *Unified Korea*, 276, 84-87.
22. Lee, H. (1989). *The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The Scientific Encyclopedia Publisher.
23. Lee, J. (2015). Investment in North Korea of Korean resident businessmen in Japan in the 1980s. *Sa-chong*, 85, 79-120.
24. Lee, J., & Han, S. (2018). The forma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color film(1950-1957). *Contemporary Film Studies*, 33, 111-140.
25. Lee, M. (1998, October). North Korean defector interview 29, Ho-Sam Park, the former lab worker at the Machinery Manufacturing Lab in Pyongseong Science Academy. *Unified Korea*, 178, 44-47.
26. Lee, S. (2017). The social construction and practices of 'visiting the Geumgang Mountain', *Discourse*, 21(2), 77-107.
27. Lim, H. (1994). *The Land Development of North Korea, City and Transportation*. The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28. Moon, M. (2021).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orth Korea's 'revolutionary tradition' and its changes in historical understanding in the 1950-1960s. *Yoksa Wa Hyonsil*, 119, 237-271.
29. *North Korean Central Yearbook*. (1964). Korean Central Communications.
30. Park, C. (2011). Baekdu Mountain: the invention of tradition and the emblems. *Reviews on the Art History*, 36, 43-74.
31. Park, C. (2019). *The Art of North Korea in the Time of Division: The Trauma Inside the North Korea and Us, Represented in the Art*. Art Books.
32. Park, D. (1991, November 17). Hyangsan-eup, which is prosperous under the sunlight of the party. *The Rodong Sinmun*.
33. Ryu, Y. (1988). *Our Beautiful Homeland I*. Worker's Group Publishing.
34. Shin, J. (2010). The change of the reform-opening policy in North Korea: a focus on the tourism industry policy. *North Korean Studies Review*, 14(2), 133-158.
35. Shin, S. (2021). The images of Mount Geumgang reproduced in the visual media of North Korea. *Journal of Humanities*, 33, 9-48.
36. Shim, E. (2001). Geumgangsán tour business as an infrastructure investment,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13(2), 65-94.
37. Sung, N., & Jeon, B. (2021). The progress of Mount Geumgang national park plan and its significance during the 1930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7(8), 101-112.
38. The novel "The Eight Fairies of Mount Geumgang" was published in Czechoslovakia. (1957, December 3). *The Rodong Sinmun*.
39. The rest homes in Samjiyeon. (1990, February). *Korean Architecture*, 57-61.
40. Woo, J. (2014). A study on Han Seol-ya's "Geumgang Nymph" -a study on the revision of "Woodcutter and Nymph"- . *Journal of Children 's Literature and Education*, 15(4), 209-225.
41. Woo, M. (2006). The changing meaning of modern travel and the self-organizing logic of colony and empire: a study of the travel writings on Mt. Myohyang. *The Dong Bang Hak Chi*, 133, 311-343.
42. Yoo, H. (2019). Legal system improvement plans for long-term development of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44(1), 190-235.

(Received Dec. 15 2021 Revised Jan. 24 2022 Accepted Feb. 15 2022)